

한국에서 대학생으로 살아가기에 관한 고찰

김혜선*, 이지하**, 양민옥***

신구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사***

A Qualitative Study on living as a University Student

Hye-Sun Kim*, Jieha Lee**, Yang Min Ok***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hingu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Lecturer, School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한국에서 대학생으로서의 삶을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생으로서 ‘생각하는 연습도 해 본적 없고, 생각할 여유도 없음’, ‘다른 사람의 판단과 결정만 바라봄’, ‘씩 내키지 않지만 주어진 것에 맞추어 그냥 살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음’의 삶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기 내내 획일화된 입시중심의 인생목표 아래에서 지내다보니 자주적인 삶의 기회가 부족했다. 그것은 연구참여자들을 성인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이 성인기에 적응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발달과정상 완충적 역할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주제어 : 대학생, 대학생활, 대학교육, 대학생의 삶, 질적연구

Abstract The authors examined the life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Overall, the life illustrated by Korean university students was grouped into four themes as follows: 'never experienced critical thinking, don't have enough time to critically think,' 'looking for decisions and conclusions by someone else,' 'just doing my job although I don't want,' and 'I don't know what I am supposed to do for my own life.' Since participants of this current study spent their adolescence under the standardized education as well as the regulated direction, they did not experienced their proper independent life. Given the fact that Korean university students had troubled with their life transition into adulthood, more efforts are needed to change the social perceptions toward university students and to develop the appropriate action derived by colleges/universities in order to guide university students' healthy transition into adulthood.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University education, Life of university students, Qualitative study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8023402)

Received 18 August 2014, Revised 8 October 2014

Accepted 20 Nov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Jieha Lee, Ph.D.(Soongsil University)

Email: jieha.lee@ss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대부분 청소년들은 대학에 입학하는 동시에 낯선 환경 속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경험하던 일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학의 구조는 학생 스스로 학업계획을 세우고 과목을 선정하는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학생에게 일상생활의 가장 큰 변화는 중고등학교 시절과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개인에게 많은 자유와 선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대학생들에게는 학업과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이 시기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독자적인 생활방식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래 집단 위주로 형성되어온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의 관계에 노출이 되며 그 범위 또한 확대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생의 위치를 살펴보면, 1980년에는 대학생은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되는 중심 집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강한 엘리트로서의 자의식은 이 시기의 사회운동이나 변화의 주체로서 행동하는 세대의 기반으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학진학률의 급격한 상승과 맞물려 대학생은 자의반 타의반 변화의 주체가 되는 엘리트 의식을 상실하게 되었다[1].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의 과정은 무관심하게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사회의 배움의 구조는 '대학진학형'에 기반하여 대학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관심은 오로지 '대학입시'에만 머물러 있으며, 한국사회의 취업난의 여파로 대학입시 이후의 대학에서의 배움의 과정은 취업준비 과정으로 간주되고 있다[2]. 이와 같이 대학생은 이제 대중교육의 대상 집단일 뿐 주체적인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되는 우수한 집단을 상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1].

대학생 시기는 생애주기적 관점 (life course perspective) 에서 본다면 청년기(young adulthood) 혹은 청소년 후기 (late adolescence)에 해당 한다 [3]. 청소년 전기의 대표적인 과업이 성적인 성숙과 이성애의 관심으로 대표되는 데에 반해, 이와 같은 청년기에는 자아 정체성의 탐색과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생활태도를 형성하며, 헌신이 이루어지고 진로를 계획하고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질 준비를 하게 된다[3,4]. Erikson은 이

시기를 청소년 후기로 지칭하며, 주요 발달과업으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물리적 독립과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을 강조하였다. 즉, 이 시기의 개인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성숙한 개인으로 기능해야 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공유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5]. 또한, Levinson은 청년기를 청소년기에서 벗어나 대인관계, 직업, 신념체계에 대한 의사결정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시기임을 강조하였다[6]. 즉, 청년기에 개인은 자율적 기능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타인과의 친밀한 유대감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진로를 탐색하여 직업을 결정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는 청년기의 사회적 역할을 부모를 떠나서 주거 독립, 재정적 독립, 의사결정의 독립, 학업이나 직업 생활 추구, 애정 관계, 부모의 준비 및 시작, 부모와의 관계 재설정, 보다 넓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관계 구축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7]. 통상적으로 생애주기와 발달단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20대가 되면 성인기 진입으로 간주하여, 20대에는 학업을 마치고, 직업을 가져서 성인으로 역할하는 출발점을 기점으로 결혼과 출산을 통해 사회재생산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안정적인 성인기로 진입하는 발판이 된다는 것이다[4].

따라서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은 자아정체성의 형성, 독립적인 생활태도 확립, 원만한 사회관계 유지, 직업생활 준비 및 시작으로서, 이 시기에 심리적 분리와 사회와의 연결성을 유지해야 하며, 노동시장 진입을 앞두고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발달과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 대학생은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와 같은 전통적인 20대의 과제는 더 이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 미국, 유럽과 일본을 포함하는 후기산업사회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8]. Arnett은 이처럼 성인기의 진입이 늦어지고 있다면 20대 초반과 중반을 포함하는 시기를 청소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중간단계로써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 이상 성인기로 분류되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청소년기의 연장도 아닌 이 시기를 'emerging adulthood'라고 명명하였으며[8], 김은정은 Arnett의 용어를 도입하여 이 시기를

‘성인기를 설계하기 위한 모색이 이루어지는 시기 (emerging adulthood)’, 이하 줄여서 ‘성인모색기’라 명명하였다[1].

한국 대학생 사회에서도 성인모색기의 특정 현상 즉, 현재의 대학생이 성인기의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성인기에 진입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다는 증거-학업수행 및 취업준비의 연장, 출산, 결혼, 가정형성의 연기는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의 20대 여성은 과거 20대 여성이 결혼, 가정형성, 출산이라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성인기에 진입을 했던 양상과는 다르게, 교육과 학업의 시기를 의도적으로 연장하고, 취업 및 결혼 또한 연기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20대 여성이 경제적·사회적·주거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를 유지한 채 성인기 진입을 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1]. 또한, 현대사회의 급속한 기술발전의 변화 속에서, 그리고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실업 상승으로 사회진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학생들은 개인적·사회적 성취에 대한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9].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와 대인관계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대학생들이 우울증, 정체성의 혼란 및, 불확실한 미래 등으로 인한 자살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1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생 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가 못하는가는 성인기로의 성공적 진입을 가능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대학 생활 이후 직장 및 사회 전반적인 부분까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11].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학생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결과로 대학생의 특성,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대학생들의 발달단계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생 시기에 다양한 측면의 개인적·사회적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성공적인 성인기로 진입하기 위해서 중요한 시기라는 것도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결과들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요인들이 각 개인들의 삶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역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로 인해 대학생들의 경험하는 삶은 어떠한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으로서의 삶을 이해하고, 대학생들이 성공적인 성인모색기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대학생 시기는 새로운 학교 환경이라는 적응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성인모색기’의 발달 결과에 따라 성인기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기는 발달적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된 대학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과 대학생들이 대학생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시간 흐름을 반영한 복합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대학생의 관점으로 대학생의 삶을 이해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성공적인 성인모색기를 돕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교육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질적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객관적 입장보다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그들의 관점으로 대학생의 삶을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2.2 연구참여자 선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국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20대의 남녀 대학생 중 성별, 지역별, 전공별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의도적 표집방법,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13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 9명, 여학생 4명이었고, 전공계열의 분포를 보면 인문사회계열이 5명, 예체능계열이 4명, 상경계열이 2명,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재학상태를 살펴보면 12명이 재학 중이었고 1명이 휴학 상태였으며, 재학 중인 대학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및 경기권 7명, 충청권 2명, 호남권 3명, 영남권 1명으로 나타났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Participants	Gender	Field of study	Status	Residential condition	School location
A	Male	Humanity & Social Science	Enrolled	Self-boarding	Chungcheong
B	Female	Art/Music/Physical Education	Enrolled	Live with Family	Kyeonggi
C	Female	Art/Music/Physical Education	Enrolled	Self-boarding	Jeolla
D	Male	Humanity & Social Science	Enrolled	Live with Family	Jeolla
E	Male	Humanity & Social Science	Enrolled	Live with Family	Seoul
F	Male	Art/Music/Physical Education	Enrolled	Live with Family	Busan
G	Female	Humanity & Social Science	Enrolled	Self-boarding	Daejeon
H	Male	Art/Music/Physical Education	Enrolled	Self-boarding	Seoul
I	Male	Business/Economics	Leave of Absence	Self-boarding	Jeolla
J	Male	Humanity & Social Science	Enrolled	Self-boarding	Seoul
K	Male	Engineering	Enrolled	Self-boarding	Seoul
L	Male	Business/Economics	Enrolled	Live with Family	Seoul
M	Female	Science	Enrolled	Live with Family	Seoul

2.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심층면접 및 관찰, 문헌자료, 영상자료 등을 사용하여 수집했으며, 심층면접 및 관찰을 주요 자료수집방법으로 삼았다. 2013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2회 이상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면접시간은 1회 평균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후 이메일, 전화통화, SNS 등을 통해 자료가 포화상태가 되었다고 느끼는 시점까지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수집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자료분석은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12].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학생활 자체를 이해하고자 판단중지과정을 거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체적으로 인식하기, 의미단위구분하기, 구분한 의미단위의 학문

적 용어로 변환하기, 구성요소로 묶기의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기 전, 연구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우선이므로[13], 연구참여자 모집단계에서부터 연구자의 신분, 연락처, 연구목적, 연구절차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이후 면접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차 연구자 및 연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연구참여의 자발성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내용을 문서화 한 연구참여동의서를 준비하여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쌍방이 서명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대학생으로서 살아가기의 경험이 4가지의 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생각하는 연습도 해 본적 없고, 생각할 여유도 없음’, ‘다른 사람의 판단과 결정만 바라봄’, ‘씩 내키지 않지만 주어진 것에 맞추어 그냥 살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음’이 그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 주어진 것대로 살아오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때까지도 내가 아닌 주변사람들의 결정에 의지해왔는데, 대학 입학 후부터 스스로 찾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다.

3.1 생각하는 연습도 해 본적 없고, 생각할 여유도 없음

3.1.1. 생각할 필요가 없는 SMART한 세상

인터넷 및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연구참여자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갈 틈을 주지 않고 다양한 ‘답’을 쏟아내고 있었고, 연구참여자들은 그 중에서 적절한 답을 그저 고르기만 하면 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H: “요즘에는 그런 거(친구들끼리 토론) 없이 내가 생각하

기 전에 이미 핸드폰 열어보면 아 이 문제에 대해 시끄럽게 떠들어주니까 ‘아, 이런 생각이(있어)? 나 이 생각에 동의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미 찬반, 중간이 딱 나뉘어져 나오니까 내가 대학생으로서 고민해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게 아니라 오우! 와! 이미 (답이)나와 있어요. 너무 훌륭해. 다 나오잖아요. (생각할)필요가 없는거죠. 저희는 그냥 내 걱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국정원 선거개입 이런 거 관심보다 내 앞가림만 하면 되지 내가 뭐 심오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나 바보되겠구나(생각했어요). 진짜 간단한 계산도 스마트폰 계산기 꺼내서 하는거예요. 14 더하기 27 이런 것도... 머리를 전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책 같은 거 누가 요즘 봐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니까 진지한 고민할 겨를이 없는 거 같아요”

3.1.2 생각할 여유 없이 바쁘고 또 바쁘게 돌아가는 날들

연구참여자들의 일상은 과제, 스펙 형성, 아르바이트 등으로 바쁘게 채워져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주말과 방학조차 숨 쉴 틈 없이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나의 미래를 위해 생각할 여유 없이 눈 앞에 닥친 일들을 해 내느라 숨차게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었다.

L: “축구동아리 들어갔고, 봉사동아리도 들어가서 주말에 시간 잡히면 봉사하고 학교에서는 캠페인 같은 거... 과외도 하고... 바빠야 활력도 나고 예전엔 안했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오히려 바빠지니까 저에 대한 생각을 못해서”

B: “저희 과 특성이 작업이 되게 많아요. 거의 밤새고... 3학년부서는 거의 놀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학교에서만 있어요. 수업 끝나면 집에서 과제하느라 시간 보내고, 주말에도... 저희는 특성상 방학 때도 놀지를 못해요. 프로그램들을 못 다루면 작업의 퀄리티가 낮아지니까 무조건 학원가서 배워놓는 거예요. 저희는 필요한 자격증이 많아요. 그런 거 기본적으로 다 따야하고, 프로그램은 무조건 상종하 중에 상가진 올려놔야... 학기 중엔 시간 없으니까 방학때 최대한 많이...”

C: “기말준비하고 합주준비하면 한 학기 끝나고... 연주회를 하면 제 거(연주)를 하려면 드림한테도 해달라고 하고 베이시한테도 해달라고 보컬이 반주가 필요하다 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많을 때는 열 몇 개 하고... 제가 15명을 해준다 하면 일주일에 15시간이 빠지니까 기숙사 일찍 들어갈 일도 없고

그랬던 거 같아요. 거의 밥 먹는 시간 수업시간 빼고 연습하는.. 토요일 일요일은 알바도 하고..”

연구참여자들은 사고가 발달하고 확장되는 아동·청소년기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한 기기들 속에 살아온 세대이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얼굴을 맞대고 토론하며 사고를 발전·확장시키는 것보다 일방적으로 타인들의 생각을 ‘쫓는’ 것에 익숙하다. 이에 더해 졸업과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로 바쁜 일상은 생각에 대한 ‘생각’조차 할 여유를 주지 않고 있었다.

3.2 다른 사람의 판단과 결정만 바라봄

3.2.1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 모름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욕구, 흥미, 좋아하는 것, 진로 등등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함과 동시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는 방법도 모르고 있었다. 이는 앞서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에서 알 수 있었던 사고훈련 기회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G: “제가 어떻게 하면 청소년 쪽으로 길을 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2학년 끝나고 3학년 들어가는 겨울방학에 아버지랑 편입해볼까 하다가 되게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막 찾아봤어요. 청소년쪽으로 가볼까 했는데 이미 기간이 다 끝난거예요 편입기간이. 그래서 그냥 여기 졸업할게요 아빠. 여기서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되었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되게 혼란스러워요”

연구자 : “본인은 뭐하면 재밌어요?”

J : “하하 내가 뭐하면 재밌지?”

L: “저는 대학생할 하면서 제일 고민 됐던 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른 게 제일 컸거든요.”

연구자 : “그러면 본인은 뭐가 하고 싶거나 땡기거나 본인을 자극하는 거 뭐가 있어요? 나를 몰입시키게 하는거..”

L :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걸 찾으려고 노력중인데 그게 별로 없어요”

3.2.2 활용 못하고 그냥 보내는 시간표 밖의 시간들

진술에서 알 수 있듯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에 진학하

기 전까지 늘 누군가에 의해 짜여진 시간표속에서 생활해왔다. 대학 진학 후, 바라던 자유가 주어졌지만, 막상 그 자유를 활용하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시간관리를 하기보다 타율적인 계획 속에 지내는 생활이 익숙해진 연구참여자들은 자율적으로 시간관리하는 것에 애로를 느끼고 있었다.

L: "대학 와서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그 전에는 자유가 없었고, 자유가 주어졌는데 제가 남들에 비해 조금 활용을 못한거 같아서"

3.2.3 적절한 정보를 줄 때까지 그냥 있기

연구참여자들은 진로 및 전공 관련한 정보수집방법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 기기에 의존하는 단편적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다. 인터넷 너머의 누군가가 정보를 업데이트 해 주기를 기다리거나, 내게 최적화된 정보를 누군가 전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A: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모집 할 때가 있긴 한데. 개인적인 잘 모르잖아요. 그런 정보를 좀 알았음 좋겠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기관 같은데서 홈페이지가 있긴 한데 빨리 업데이트가 잘 안되고..."

연구자 : "그러면 홈페이지만 보지 말고 전화를 하거나..."

A: "그렇게 까진 하려고 하진 않죠. 저도 그렇고.. 동아리에 서 알려주는 것만... ‘봉사활동’할 사람?’ 하면 그때그때 나가서 하고..."

연구자: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겨난 건(동아리) 없어요?"

A: "네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원하는)진로가 다양하잖아요?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그렇게 나누어서 큰 동아리 처럼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 모일 수 있게 (학교에서)해줬으면 좋겠어요."

3.2.4 부모님 의견대로 따름

연구참여자들은 대학 진학부터 졸업 후 진로까지 부모님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인생설계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반영시키려는 시도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학 진학과과정까지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결정해주는 진로를 주로 수용해오는 입장이었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패턴이 대학 졸업 후 진로 결정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

는 것으로 보인다.

M: "원래는 의류학과나 그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여기 밖에 안 붙어가지고... 그래도 **대학교 **과 됐는데 안 갔다 그러기도 억울하고, 부모님도 많이 추천을 해주셨고... 엄마랑 오빠가 이제 제가 대학교 오는데도 그렇고 그런 제 진로방향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제가 과량 안 맞으니까 엄마랑 오빠는 너는 그냥 스튜어디스해라 그게 너한테 잘 맞지 않겠냐..."

E: "무조건 안정적으로 가라... 형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휴학할 생각이 있어요. 돈을 벌어서 소규모 창업을 하고 싶어요. 음식과 관련된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휴학)해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될 거 같아요. 엄마한테 휴학얘기를 했더니 성적 못 나와도 되니깐 휴학만 하지 말라고..."

연구참여자들은 정보수집, 시간관리, 인생설계 등 자신의 삶의 전반에서 자주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충분한 자기 성찰 기회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에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에 더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

3.3 섹 내키지 않지만 주어진 것에 맞추어 그냥 살기

3.3.1 지금의 삶이 내키진 않지만, 다른 선택이 주저됨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현재의 대학생살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래서 재수, 편입, 전과 등의 변화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탐탁지 않으실 부모님의 의중, 고된 입시생활로의 회귀, 현재 누리는 편의의 상실, 사회진출시기의 지연 등을 이유로 다른 선택을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이 주저함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빠져있음을 볼 수 있다.

B: "(이 학교에 입학한)동기는 딱히 없었고 일단 부모님은 솔직히 재수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이 대학에 붙어가지고 과에 맞춰서 그냥 들어왔어요. 과는 내가 원했던 데라서.. 난 그 학교 가고 싶었는데 이 학교밖에 못 오는구나해서 재수하려는 생각도 했어요. 한 달 학원을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 가면 할 수 있는게 많잖아요. 다시 내가 입시를 (준비하러) 딱 가서 학원에 앉았어요. 그런데 미치겠는거예요.

놀던 습관 이런 게 갑자기 강압적으로 공부만 해야되는 게 너무 답답한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또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달 결제하고 학원에 가서 앉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왔어요. 저 못하겠습디다 이려고. 1학년 2학기 복학할 때는 포기하는 심정이 컸었어요. 여기나 가자 이려고."

J: "편입 공부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 하게 되면 안됐을 때 포기해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학군단 기수도 밀려나고 제가 (동기들보다)나이도 1년 많은데 거기다가 1년 더 늦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사는데(기숙사)에서도 휴학을 하게 되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걱정이고... 부모님 의견도 걱정이고 솔직히 약간 (편입)하고 싶단 생각 있긴 한데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고"

M: "근데 전과를 하면 혼자 수업을 들어야 되고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랑도 헤어지면 학교 생활 혼자가 되고..."

3.3.2 '공부' 라는 익숙한 방식에 맞춘 진로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기동안 오로지 대학입학에만 초점을 둔 획일적인 입시준비만 해 왔기 때문에 자신을 탐색할 기회가 적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잘 모른 채, 입시준비로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기'를 습관적이고 막연하게 지속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의 진로를 정할 때도 '책상에 앉아 공부하기'로 승부할 수 있는 진로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진로결정이 연구참여자들의 삶에 열정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자신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성찰이 없었기 때문이다.

I: " '나는 꿈이 없다 근데 (꿈이 있는)너가 부럽다' 는 말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 막연히 나는 꿈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라서, 어떤걸 하고 싶은지 몰라서 공부한다, 솔직한 말로 내가 해온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하는거 뿐이다면서.."

L: "진로를 생각해봐도 공부 말고는 딱히 제가 능력이 뛰어나거나 크게 흥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뭐... 그니까 좋아하는걸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해오던게 공부고 해서 공부쪽으로 흥미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 수학과고 해서 (회계사 준비를)선택 한거지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를 거 같아요. 제가 방향을 아직도 사실 고민 중이에요."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기 내내 입시위주의 수동적이

고 획일화된 공부를 해왔다. 그리고 입시준비가 곧 삶이었다. 청소년기때는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해왔고, 지금은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 중이다. 그런데 공부의 목표에 자신의 꿈과 바라는 바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청소년기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을 위해, 스펙을 쌓기 위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공부를 해왔던 것일 뿐, 자신을 탐색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마음은 자신의 원하는 바를 알 수 없어 혼란 속에 있으나, 머릿속은 졸업과 취업에 대한 압박감이 누르고 있어, 몸에 밴 공부하기 방식 이외의 것을 찾으려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공부 이외의 것을 시도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냥 현실에 맞춰 지내는 것이다.

3.4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음

3.4.1 대학 입학 후 잃어버린 목표와 방향성

연구참여자들에게는 대학진학이 인생의 목표였다. 대학진학률의 급상승속에 그 목표는 마치 숙명처럼 당연했고 청소년기의 연구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대학 입학으로 숙명같은 인생의 목표가 사라졌다. 주어진 인생의 목표를 두고 치열하게 지내왔던 연구참여자들은 대학 입학 후 아무도 자신들에게 인생 목표를 주지 않자 인생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다.

L: "좀 유유부단해서 생각만 하고 판단력이나 그런 게 부족한 거 같아요.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못해서...귀가 얇아서 이 얘기 저 얘기 듣고 하다보니까 결국엔 생각하다가 머릿속에서 없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 주관도 없다는 게 콤플렉스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성격이 어떻게 보면 수능공부할 때는 참 (적합한데) 그것만 잘해라 하면 열심히 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뭘 해라는게 없으니까 제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데..목표가 저는 공부가 재밌어서 한 게 아니라 대학교 가려고 한 거였는데 대학 가니까 그게 허무한 거예요"

H: "늦게 일어나고 그냥 게을러진거죠 하기 싫은거죠. 무기력해지는...목표가 없어지고... 원래 진짜 막 재수할 때만 해도 진짜 절실하게 그랬는데 학교오고 나서 보니까 제가 많이 바뀌어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K: "나중에 자식 낳으면 대학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말라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그냥 다 가기 때문에 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왜 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3.4.2 갈피를 못 잡은 채 막연한 취업준비 중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성적에 맞춰 전공을 선택했고, 전공에 맞춰 진로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애당초 전공은 자신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공공부도 별로 재미없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도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가오는 졸업의 부담감과 불안 때문에 막연히 취업준비를 하고 있었다.

D: "1학년 때는 거의 아무것도 학교 다닌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었거든요? 2학년 때는 전역하고 나니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격증, YRP라고 이런 것도 하고 뭔가를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다 옹두사미로 끝나고..(웃음) 자격증 하나만 따고... 회화스터디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걸 쪽 해야 하는데 그거 (짤개)하니깐..."

3.4.3 고등학교 때보다 더 암울해진 지금

연구참여자들이 고등학생일 때는 대학 진학이라는 주어진 목표가 있었다. 그런데 대학 진학 후에는 막연한 취업이라는 목표가 있을 뿐 명확히 주어지는 목표가 없었다. 목표를 정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냉혹한 취업현실과 맞닥뜨린 연구참여자들은 암울한 현재를 살고 있었다.

M: "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그거만 바라보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정작 대학 와서는 더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뭔가 현실이 뭐가 달라질 것도 없는 거 같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회사 취직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대학입학 후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밝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희망적이잖아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면 사람이 현실적이 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같아요. 뭔가 미래가 없는... 그래서 그냥 또 공부 안 하고..."

대학입학이라는 정해진 목표아래 주어진 시간표대로 지내왔던 연구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인생목표를 설계해야 하는 것이 매우 낯설었다. 전공과 적성의 일치도 사이에서의 혼란, 아무도 정해주지 않는 졸업 후의 인생목

표 등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현재를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선 진술에서 나타났던 자주적 의사결정기회의 부재, 독립적이지 않은 삶을 거친 연구참여자들이 대학입학 후 갑작스럽게 독립적 의사결정의 상황에 노출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사료된다.

4. 결론 및 함의

최근의 대학생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자율적인 사고방식과 독립적인 생활방식을 갖고 있고, 폭넓은 대인관계와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이라는 환경에 적응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14].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삶은 '자주적이지 못한 삶'이었다. 자율적 사고방식과 독립적 생활태도에 대한 혼란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생이 되었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진로에 대한 확신도 크지 않아 막막한 현재를 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우리 사회의 대학생들이 성인기에 진입하지 못하고 청소년기의 연장도 아닌 성인모색기에 머물러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1,6].

기본적으로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진입은 대학생 스스로의 개별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자율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성장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성인모색기의 대학생을 위해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대학이 성인기 진입을 위한 완충지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자면 첫째, 대학 내 대학생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중고등학교는 담임교사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 청원의 창구가 일원화될 수 있다. 혹은 학교사회복지사가 교사를 도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도 한다. 대학에서도 전공분야 이외에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정서·경제 등 다양한 면을 아우르며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대학생활의 적응과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진입은 모든 요인들이 두루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합적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자기탐색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rikson은 청

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한다고 했으나,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은 그 시기에 그러할 기회가 없이 대학 입시에만 전력해왔다. 타 전공수업의 참여 후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연구참여자들의 진술¹⁾에서 알 수 있듯, 대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전공을 선택했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선택 때문에 휴학을 했거나 고민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대학에서 대학생들에게 다방면의 자기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진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대학은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훈련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입학과 동시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상황에 준비없이 노출되어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그래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 혹은 타인에게 많은 부분의 의사결정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대학시기 동안조차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후 성인기에도 유사한 어려움을 경험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대학의 역할이 학문적 지식전달 및 교육 뿐 아니라 그것의 기초가 되는 부분의 교육을 아우를 수 있도록 역할의 확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며, 삶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복합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 개개인의 성공적인 성인기의 진입뿐 아니라 여느 때보다 치열하게 대학의 발전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유형, 대학졸업 후 취업준비생들에 관하여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대학생들을 이해하고 대학생 및 대학의 발전에 실효성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학의 역할만큼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적 인식의 전환일 것이다. ‘빨리빨리’의 조급함에서 벗어나 여유를 갖는 사회적 분위기와 자녀의 자기결정을 믿어주는 부모의 태도는 대학생들이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진입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사회와 대학생들에게 고하는 연구참여자의 진술로 본 연구의 함의를 대신하고자 한다.

I: “모든 일을 할 때는 10년, 최소 5년 이상은 해봐야 빛이 보이잖아요. 보통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6년 공부하고 중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16년을 공부하잖아요. 더 필요하다면 대학원까지 가서 20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많은데 보통 다른 거에 대해선 되게 짧은 시간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후배들 중에 휴학할까 하다 그냥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저는 휴학을 추천해요. 휴학해서 너를 한 번 돌아보라고, 너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걸 한번 생각해보라고... ‘1년 정도 남들보다 뒤쳐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길게 보면 남들보다 더 달려가고 있을 수 있다. 그 대신에 휴학 할 때는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부모님이 주신 것도 있고요. 부모님이 군대 전역하고 독립시키지 않았으면, (집을)나와 살지 않았으면 이렇게 못 썼을 수도 있죠. 요즘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내 자식은 어디 가서 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능력 안에서 다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잖아요. 근데 아빠의 판단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던 거 같아요”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3S1A5A8023 402).

REFERENCES

- [1] E.J. Kim, ‘Emerging Adulthood’ in Korea: Understanding the new way of young Korean women’s coming of age experiences. *Society & Theory*, Vol. 19, pp. 329-372, 2011.
- [2] M. Jin, An Exploratory Study on Inequality of core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23, No. 1, pp.105-127, 2013.
- [3] E. Hutchinson, *Dimensions of human behavior: the changing life courses*, Thousand Oaks, CA: Sage, 2008.
- [4] A. Kim, Conflict and self reflection during young

1) D: “경영(학과) 수업을 듣다 보니깐 아, 이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예 그걸(경영전공) 해야겠다고 (결심)하니깐 지금 전공 쪽으로 관심이 안가(더러구요)...”

adulthood. Seoul: Sigma Press,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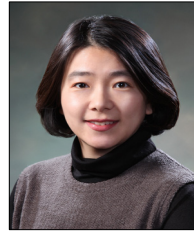
- [5] E.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2nd edition). New York: Norton, 1963.
- [6] D. Levinson,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Knopf, 1978.
- [7] A. Halpern, Transition: A look at foundations. Exceptional Children, Vol. 51, pp.479-486.
- [8] J.J. Arnett,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No. 5, pp. 469 - 480, 2000.
- [9] S. R. Hong, Perceptions of the Self-Efficacy of Youth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Th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Vol. 24, No.5, pp.37-51, 2006.
- [10] Seoul National university, Mental health Center, <http://wellbeing4u.snu.ac.kr>
- [11] H R. Kim, A Study on Developmental Factors influencing College Adjustment - focused on Autonomy, Social Connectedness, and Career Self-Efficac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24, pp.85-105, 2013.
- [12] A. Giorgi,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1985.
- [13] H.M.R. Hong et al.,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ork, Seoul: Hakjisa, 2008.
- [14] H.R. Kim, A Study on Developmental Factors Influencing College Adjustment, The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No. 24, pp. 85-105.

김혜선(Kim, Hye Sun)



- 2011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신구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조교수
- 관심분야 : 가족복지, 가족상담
- E-Mail : hyesun37@shingu.ac.kr

이지하 (Lee, Jieha)



- 2008년 5월 : PhD from Boston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 2011년 3월 ~ 현재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여성복지
- E-Mail : jieha.lee@ssu.ac.kr

양민옥(Yang, Min Ok)



- 2012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강사
- 관심분야 : 가족복지, 해결중심
- E-Mail : rainlove69@hanmail.net